

01. ②	02. ⑤	03. ①	04. ④	05. ③	06. ②	07. ②	08. ④	09. ①	10. ④
11. ①	12. ⑤	13. ⑤	14. ④	15. ⑤	16. ④	17. ④	18. ③	19. ②	20. ⑤
21. ⑤	22. ④	23. ②	24. ③	25. ①	26. ①	27. ③	28. ⑤	29. ②	30. ④
31. ⑤	32. ②	33. ①	34. ②	35. ③	36. ④	37. ⑤	38. ②	39. ①	40. ③
41. ③	42. ⑤	43. ④	44. ④	45. ③	46. ④	47. ①	48. ②	49. ③	50. ③

[1-5] 듣기

1. 이제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는 얼마 전에 전통 택견 발표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랜 시간 수련을 거친 택견 보유자가 직접 나와서 시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멋진 모습을 보고 택견에 매력을 느껴 오늘 발표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택견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외유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는 얼핏 보면 그냥 걷는 것처럼도 보이고 걸음에 율동을 가미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굼실대거나 우쭐우쭐하면서 한자의 갈지자 형태로 걷는 모습이 무척 경쾌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팔을 상하좌우로 휘젓는 모습은 마치 새가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동작과 손동작이 굼실굼실, 능청능청, 우쭐우쭐 부드럽게 어우러져 보는 사람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다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치솟는 듯한 발차기로 이어질 때에는 보는 사람을 잔뜩 긴장하게 합니다. 택견의 멋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몸놀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를 통한 주제의 도출)

정답해설 : 발표자는 발표 주제가 ‘택견’이라고 말한 후, ‘택견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외유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이어서 ‘굼실대거나 우쭐우쭐하면서 한자의 갈지자 형태로 걷는 모습’, ‘두 팔을 상하좌우로 휘젓는 모습’, ‘발동작과 손동작이 굼실굼실, 능청능청, 우쭐우쭐 부드럽게 어우러져 보는 사람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다가’, ‘보는 사람을 잔뜩 긴장하게 합니다.’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택견의 동작을 소개한 후, ‘택견의 멋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몸놀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발표의 주제는 ‘택견 동작의 멋’이라고 한 ②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⑤ 발표의 첫머리의 ‘오랜 시간 수련을 거친 택견 보유자가 직접 나와서 시범을 보여 주었습니다.’라는 부분에서 택견 보유자가 언급되긴 했지만, 택견 보유자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2. 이번에는 대화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 너, 미술 과제 다 했니?

여: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 찾기 말이야? 응. 마침 내가 읽고 있는 책에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라는 고대 그리스 화가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

남: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 어떤 이야기야?

여: 제옥시스가 포도 그림을 그렸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뺐대. 그 소문을 들은 파라시우스가 자신의 실력도 그에 못지않다는 걸 보여 주려고 제옥시스를 초대 했다는 거야. 제옥시스가 파라시우스의 작업실에 가서 제옥시스의 그림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치우려는 순간, 커튼 역시 그림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됐다는 이야기지.

남: 제옥시스가 파라시우스의 솜씨에 속아 넘어간 거구나. 난 신라 때 화가의 이야기를 찾았어. 너도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황룡사 벽에 소나무 그림을 그렸더니, 술개나 제비, 참새들이 보고 날아들다가 벽화에 부딪혀 떨어지곤 했다는 이야기 말이야. 술거라는 사람의 이야기지.

여: 두 이야기가 비슷한데.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림에 공통점이 있잖아.

2. 추론적 사고(공통점의 추리)

정답해설 :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 찾기가 주제인 대화의 일부이다. 여학생은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라는 고대 그리스 화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제옥시스가 포도 그림을 그렸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뺐으며, 파라시우스의 초대에 응한 제옥시스가 그림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치우려는 순간 그 역시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남학생은 신라 시대의 화가 술거가 황룡사 벽에 그린 소나무 그림이 진짜일 줄 알고 각종 새들이 날아들다가 벽화에 부딪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이야기는 ‘실물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된 그림’에 관한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② 소재가 지닌 특징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그림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묘사된 그림에 대한 이야기이다. ④ 여학생은 고대 그리스 화가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의 그림을, 남학생은 신라 화가 술거의 그림을 소개하였으므로 동서양의 그림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림에 대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3. 이번에는 교양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표정 관리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표정을 통해 감정이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표정을 관리한다는 말은 감정을 드러내거나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정을 의도적으로 조절한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려는 의도와 얼굴에 드러난 표정의 관계를 함께 분석해 보시죠.

첫 번째 자료입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었다가 화해하는 학생의 모습입니다. 이 학생은 친구와 화해하기 전의 불편한 감정이 완전히 풀리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을 친구에게 보여 주려고 합니다.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이 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기 위해 환하게 웃고 있군요. 감정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고, 의도한 대로 감정이 표정에 드러났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함께 볼까요? 운동 경기에서 힘겹게 승리한 선수의 모습입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도 더없이 기쁘고 감격스럽겠지요? 그런데 승부에 진 상대 선수를 배려해서 이 선수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어찌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경우 의도와 표정을 분석해 봅시다.

3. 비판적 사고(자료의 분석)

정답해설 : ‘감정을 표현하려는 의도와 얼굴에 드러난 표정의 관계’를 주제로 한 교양 강연이다. 첫 번째 자료는 친구와 다투었다가 화해하는 학생이 기쁜 표정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한 경우를 분석한 내용이다. 이 학생은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환하게 웃고 있는데 강연자는 이를 ‘감정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고, 의도한 대로 감정이 표정에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 자료에서 이 선수는 경기에서 승리하여 기쁘고 감격스럽지만 상대 선수를 배려하여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고 ‘의도’하지만 자신의 기쁜 ‘감정’을 자신도 모르게 미소로 표출하고 만다. 그러므로 의도는 기쁜 감정을 숨기려 하는 것이고, 표정은 자신도 모르게 기쁜 감정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④ 표정에는 의도와 다른 감정인 미소가 드러나지만(㉠), 의도는 기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4~5] 이번에는 라디오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자책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출판 협회에서 김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부장님, 이제는 주변에서 종이책 대신 전자책을 읽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전자책의 출간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남: 저희 협회에서 올해 상반기까지의 전자책 판매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전자책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 저도 출퇴근 때 틈틈이 전자책을 읽습니다. 휴대나 보관이 편리한 것이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소설을 읽는데요, 가장 많이 판매된 전자책은 어떤 분야의 책입니까?

남: 남자들은 자기 계발서를, 여자들은 소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분야의 책을 합하면 전체 전자책 매출의 2/3가 넘습니다. 반면 그 밖의 책들은 그리 많이 출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책 출간이 일부 분야에 편중되다 보니 독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 전자책의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쇄하는 데 비용도 들지 않는데 가격은 종이책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 그렇습니다. 현재 전자책의 가격은 종이책의 70퍼센트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이책과 달리 재판매와 대여가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책의 가격은 현재보다 더 낮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출판사마다 전자책의 형식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하나의 기기로 모든 책을 읽을 수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참, 다소 뜻밖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진행자께서는 어떤 연령층이 전자책을 가장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 그거야 전자 기기를 잘 다루는 20대가 아닐까요?

남: 재작년에는 그랬습니다만, 올해 전자책 시장의 최대 고객층은 30대였고, 두 번째가 40대였습니다. 20대는 그다음이고요. 이 결과는 전자 기기에 친숙한 것과 전자책을 즐겨 읽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출판사마다 전자책의 형식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하나의 기기로 모든 책을 읽을 수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라는 남자의 발언에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언급이 나타났지만, 이는 전자책의 형식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기기의 종류를 소개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전자책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는 남자의 첫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출퇴근 때 틈틈이 읽을 수 있고, ‘휴대나 보관이 편리한 것이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 여자의 두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남자들은 자기 계발서를, 여자들은 소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한 남자의 두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전자책 시장의 최대 고객층은 30대이고, 두 번째가 40대, 20대가 그 다음이라고 말한 남자의 마지막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남자는 첫 번째 발언에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전자책 판매가 1.5배 늘었다고 했다. 두 번째 발언에서 남자들이 선호하는 자기 계발서와 여자들이 선호하는 소설이 전체 전자책 판매량의 2/3가 넘는다고 했으며, 세 번째 발언에서 전자책의 가격은 종이책의 70%에 이른다고 했고, 이어서 전자책의 최대 고객층이 30대→40대→20대 순이라고 했다. 즉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자책의 가격은 종이책의 70%에 이르는데, 전자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이 낮아져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전자 기기를 잘 다루는 20대가 전자책을 가장 많이 읽는 연령층일 거라는 여자의 추측과는 다른 결과를 남자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인 통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문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②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고 있는 쪽은 남자라기보다는 여자이다. ④ 남자는 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낯선 개념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남자는 특정 연령대의 전자책 구매 특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특정 인물을 사례로 들지 않았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한 부분도 없다.

[6-12] 쓰기, 어휘 · 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용기의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글을 쓰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유추해 내는 문제이다. 용기 제작 과정의 각 단계에 비추어 한 편의 글이 제작되기까지 거쳐야 할 각 단계를 연상해 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용기 제작 과정에서는 ‘다른 자료를 수집하여 생성한 내용을 보완한다’라는 내용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보기>에 다른 재질의 흙을 확보하여 이미 있는 용기 재료를 보완한다는 성격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용기를 만드는 목적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흙을 골라 채취한다는 <보기>의 내용에서, ‘글쓰기의 목적에 적합한 글감을 선택한다’라는 내용을 유추해 낼 수 있다. ③ 흙가래들을 쌓아 올려 서로 연결시키며 각 부분을 잘 연결하여 구조상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보기>의 내용에서,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짜임새 있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는 글을 쓴다'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④ 전체적으로 살펴 울퉁불퉁한 곳을 매끄럽게 손질한다는 <보기>의 내용에서,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 글을 다듬는다.'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⑤ 다른 사람의 무늬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무늬만을 새겨 넣음으로써 개성을 살린다는 <보기>의 내용에서,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만의 문체를 살린다.'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7. 비판적 사고(개요 수정·보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글의 주제와 글의 구성 단계를 고려하여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은 강사의 시범 보이기로 그치는 교육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으로, 그대로 두어도 상위 항목 '응급 처치 교육의 문제점'에 어울린다. 또한 'IV-2'는 실습 위주의 교육 강화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두어도 '응급 처치 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상위 항목에 어울린다. 따라서 상위 항목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위해 ㉠과 'IV-2'를 맞바꿈으로써 기존의 항목 배열에 변화를 주자고 한 ㉡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응급 처치'가 어떤 점에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내용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포괄하기 위해 ㉠을 '응급 처치의 의의'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③ 'III-2'는 '응급 처치 관련 교육 자료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에 해당하므로, 'IV(응급 처치 교육 활성화 방안)'의 아래에 'III-2'와 대응하는 '응급 처치 교육 자료 확보 및 활용'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자고 한 것은 적절하다. ④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 교육 강화'는 상위 항목 '응급 처치 교육 활성화 방안'과 무관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글을 매듭짓는 단계에서 이전의 내용을 강조하는 '응급 처치 교육 활성화 촉구'로 ㉡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8. 비판적 사고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비판하기)

정답해설 : '교내 학생 상담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의 글을 쓰기 위해 주어진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가)에는 학생의 주된 고민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나)에는 학생들이 선호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상담자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④의 경우, 이 두 자료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가장 선호하는 상담자로 인식한다는 내용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는 친구를 가장 선호하는 상담자로 제시하고 있는 (나)의 자료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방안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학생들의 고민 내용이 학업-진로-외모 등의 순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학생들이 주로 고민하는 내용이 학업이나 진로라는 해석을 이끌어낸 ①은 적절하다. ② (나)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담자가 친구-선배-교사 순으로 제시되어 있고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상담자가 교사-선배-친구 순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담자와 도움이 되는 상담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해석을 이끌어 낸 것은 적절하다. ③ (다)의 첫 번째 자료에서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은 상담이 일회적인 상담보다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있으므로, 이 자료를 지속적인 상담의 필요성을 밝히는 데 활용하자고 한 방안은 적절하다. ⑤ (가)의 자료에서는 학업에 관해 고민하는 학생이 가장 많다는 내용을, (나)의 두 번째 자료에서는 선배가 학습 동기와 학습 방법에 관한 좋은 상담자라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⑤의 내용은 적절하다.

9.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글은 청산도, 그 중에서도 청산도의 구들장 논과 돌담길을 여행한 소감에 관한 글이다. 이 글의 제목인 ‘㉠ 청산도의 바다’는 글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나, ①과 같이 ‘청산도의 돌담’으로 바꾸어도 글 전체의 내용이 포괄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에서는 ‘구들장 논’을 ‘먼저’ 구경하고, ‘그리고 나서’ ‘상서리 돌담길’을 둘러보기로 했다는, 글쓴이의 여정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의 둘째 문단은 상서리의 돌담길을, 셋째 문단은 구들장 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의 여정을 고려한다면, 두 문단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서 ㉠은 2문단에 포함된 문장이다. 문단이 바뀌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으나,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의 내용은 상서리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에 관한 것인데, 이는 상서리 돌담길에 대한 문단의 중심 내용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의 ‘돌로 평평하게 만든 바닥 위에’는 이전에 제시된 정보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므로, 반복되는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를 활용하여 ‘그 위에’로 간결하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의 서술어 ‘곳이다’에 호응하는 주어가 없으므로, ‘청산도는’이라는 주어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내용 조건과 표현 방식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문구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내용상 친구의 행위에 동참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며, 표현상 역설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④는 ‘~ 당신도 함께 하세요’라는 구절이 내용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과거는 미래 속에 존재하고 미래는 과거 속에 존재합니다’라는 구절이 표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과거는 미래 속에 존재하고’라는 구절은 논리나 일상적인 어법으로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와의 관계 속에서 과거가 의미를 갖게 된다는 의미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설법에 해당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이지 않는 세상도 볼 수 있다’에서 역설법이 사용되었지만, 내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② ‘우리도 힘을 보탬시다’가 내용 조건을 충족하나, 역설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⑤ ‘당신이 돕는다면’에서 내용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역설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11. 어휘 · 어법 (준말의 용법 이해)

정답해설 : ‘파이다’는 ‘ㅏ’로 끝난 어간에 ‘-이-’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보기>의 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명에 따라 ‘꽤다’와 같이 ‘ㄷ’로 줄여 적는 것이 적절하다. 같은 이유로 ‘파인’도 ‘팬’으로 적어야 한다.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꽤다’에서와 같은 ‘ㄷ’ 다음에 ‘-었-’이 결합하여 줄 경우 준 대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꽤었다’를 준 대로 적은 것이 ‘꽤다’가 된다. 따라서 ‘꽤다’가 줄기 이전의 본말은 ‘꽤었다’이다. 정답 ①

12. 어휘·어법 (관용 표현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⑤의 ‘혀를 내두르다’는 ‘깜짝 놀라다’의 의미에 가까우며, ‘안쓰러워하다’의 의미로는 보기 어렵다. 사전적 의미로 볼 때, ‘혀를 내두르다’는 ‘몹시 놀라거나 어이없어서 말을 못하다.’의 의미이며, ‘안쓰러워하다.’는 ‘손아랫사람이나 약자의 딱한 형편을 마음에 언짢고 가엾게 여기다’의 의미이다. 정답 ⑤

[오답파하기] ③ ‘발을 구르다’는 ‘매우 안타까워하거나 다급해하다’를 뜻한다. ④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손’과 동작의 특징을 나타내는 ‘재다(동작이 재빠르다.)’가 결합한 관용 표현 ‘손이 재다’는 ‘일 처리가 빠르다’는 뜻이다.

[13-16] 인문, ‘공자가 제안한 군자에 의한 정치’

지문해설 : 이 글은 공자가 제안한 예에 기반을 둔 정치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글로, ‘예’, ‘정명’, ‘군자’, ‘소인’, ‘성인’ 등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유학적 정치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윤리 규범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예를 통해서 사회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공자는 군자를 정치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 군자는 도덕적 수양과 실천을 통해 예를 행함으로써 백성들을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존재이다. 또한 군자는 도덕적 본성을 완성한 인격자인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끊임없는 도덕적 수양을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공자의 정치 제도는 춘추 시대라는 혼란한 사회를 도덕적 본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주제] 도덕적 수양을 실천하는 군자에 의한 정치

1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을 보면 정치에 있어서의 법과 형벌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만약 정치가 법과 형벌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강압적인 것으로 단지 형벌을 피하기 위해 법을 지킬 뿐 도덕적 삶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이나 실천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회적 관계에 적합한 도리를 행하고 있는지,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예를 실천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법과 형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파하기] ① 1문단에 제후국들이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일삼던 시기라는 진술이 나온다. ② 4문단에서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면서 예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3문단에서 제시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극복하여 군자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며 이를 통해 예의 실천, 도덕적 수양 등의 유학적 정치 이념을 제시한 것이다. ③ 2문단에서 정명을 실천할 주체로서의 군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5문단에서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군자는 도덕적 수양을 할 뿐만 아니라 독서나 육예의 수련을 통해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14. 사실적 사고(개념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예’가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처지에서 자신의 도리를 행하는 정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각각의 역할에 맞는 도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군주는 군주의 예를, 신하는 신하의 예를, 부모와 자식 역시 각각 그들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예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예는 신분적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각각의 도리를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분적 평등 관계를 추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 마지막에 진술되어 있다. ② 1문단 두 번째 문장에서 춘추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제시하고 있다. ③ 1문단 세 번째 문장에 진술되어 있다. ⑤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예는 도덕적 본성을 규범화한 개인의 윤리 규범이기 때문에 사회 내의 모든 계층이나 개인은 그러한 도덕성을 요구받게 된다.

15.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의미 추리)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이어 5문단에서 군자의 요건으로 도덕적 수양과 학문적 소양을 들고 있다. 이를 통해 소인도 군자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얼마든지 군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ㄷ) 6문단에서 ‘성인’은 도덕적 수양이 더 필요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격자이며 군자는 수양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도덕적 본성을 완성하면 ‘성인’이며 아직 완성하지 못한 채 노력하는 존재는 군자라고 할 수 있다.(ㄴ)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법이 없는 존재는 ‘성인’이다. ㄴ. 완전한 인격체이며 유학에서 목표로 하는 대상은 ‘성인’이다.

16. 어휘 어법(문맥에 적절한 한자어의 파악)

정답해설 :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욕망에만 정신이 쏠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때 ‘사로잡히다’는 ‘생각이나 마음이 온통 한곳으로 쏠리게 되다’의 의미이다. ‘매수’는 ‘금품이나 그 밖의 수단으로 남의 마음을 사서 자기편으로 만드는 일’의 의미로 사리사욕에 마음이 쏠린 상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합당’은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음’을 의미한다. ② ‘의거’는 ‘어떤 힘을 빌려 의지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③ ‘지칭’은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일’의 의미이다. ⑤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의 의미이다.

[17-19] 기술,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 생산 기술'

지문해설 : 이 글은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는 핵심 기술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소개하고 있다.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은 감광 물질, 마스크, 레이저 빛 등을 활용하여 반도체 기판 위에 같은 모양의 패턴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은 빛을 받으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감광 물질을 반도체 기판 위에 바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기판에 감광 물질을 바른 후에는 패턴이 새겨져 있는 마스크를 감광 물질 위에 놓고 빛을 쏘여 준다. 그러면 빛을 받은 부분의 감광 물질만 화학적 성질이 변하게 된다. 그런 다음 현상액으로 감광 물질을 제거하면 마스크와 동일한 패턴이 반도체 기판 위에 만들어지게 된다. 반도체 기판의 집적도는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많이 만들수록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주제]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는 핵심 기술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17.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마스크 위에 빛을 쏘이면 마스크의 패턴과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그림자가 반도체 기판 위의 감광 물질에 드리우게 되고, 마지막 공정에서 감광 물질을 제거하면 반도체 기판에는 마스크에 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마스크에 새겨진 패턴의 크기는 기판 위에 만들어지는 패턴의 크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반도체 소자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마스크라는 하나의 원판을 반복 복사하여 패턴을 대량으로 만든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관화의 원판은 조각칼을 이용하여 만드는 데 비해,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 마스크 패턴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짧은 파장의 광원에 반응하는 새로운 감광 물질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통해 빛의 파장에 따라 쓰이는 감광 물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8.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는 양성 감광 물질과 음성 감광 물질을 사용하여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두 번 수행하고 있다. 양성 감광 물질은 빛을 받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할 때 사용하는 감광 물질이고, 음성 감광 물질은 반대로 빛을 받지 않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할 때 사용하는 감광 물질이다. 사용된 감광 물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첫 번째 공정은 양성 감광 물질 위에 가운데 부분에만 넓게 패턴이 있는 마스크 A를 놓는 것이므로, 공정이 끝나면 ②의 그림과 같이 빛을 받지 않은 가운데 부분만 남고, 빛을 받은 양쪽 부분은 제거된다. 두 번째 공정은 첫 번째 공정에서 만들어진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반도체 기판 ②에 음성 감광 물질을 바른 후 그 위에 가운데 부분에만 좁게 패턴이 있는 마스크 B를 놓는 것이므로, 공정이 끝나면 빛을 받지 않은 가운데 부분만 사라지고, 빛을 받은 나머지 부분은 남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두 공정을 모두 수행하고 나면, ③의 그림과 같이 반도체 기판 위에 바깥쪽의 양측과 가운데 부분만 제거된 패턴이 형성되게 된다. 정답 ③

19. 추론적 사고(이유의 추리)

정답해설 : 패턴의 크기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작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짧은 파장의 광원을 포토리소그래피에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패턴의 크기를 줄여서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서는 감광 물질 없이 패턴을 만들 수 없다. ③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서는 빛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하나의 마스크 원판은 반도체 소자의 기판 위에 같은 모양의 패턴을 반복 복사하여 패턴을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것으로 다양한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의 축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

[20-23]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작품해설 : 봉건 사회를 배경으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이다. 소재의 현실성, 배경의 향토성, 인물 성격의 창조성, 주제의 저항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문 소설의 백미(白眉)로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다. 표면적으로는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을 그리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양반과 상민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20. 비판적 사고(서술상 특징의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부분에서는 서술보다는 인물 간의 대화가 중심적이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춘향이 옥에 갇혀 고초를 겪고 있으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춘향의 말을 통해서 이몽룡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 자신이 죽은 이후에 소망하는 것 등이 드러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춘향의 꿈은 춘향의 간절한 소망을 제시한 것으로 환상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제시된 부분도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내용이다. ②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을 희화화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 이몽룡이 자신을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마저 무너져 버린 춘향의 내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④ 우의적이란 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한다는 의미로, 제시된 부분에서 우의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소재도 등장하지 않는다.

21. 추론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정답해설 : 춘향이 이몽룡에 대한 정절을 지킨 것은 당대 사회의 강요라기보다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려는 춘향의 주체적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선산(先山)’은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으로, ‘서방님 귀히 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일시도 둘라 말고’ 자신의 시신을 ‘선산(先山)발치’에 묻어달라고 요청하는 춘향의 말로 보면 ㉠은 춘향이 죽어서라도 신분 상승을 이루겠다는 욕망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을 정절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춘향의 비판 의식이 투영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제시문의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부용당’이란 표현을 통해 ㉠이 둘의 사랑이 싹튼, 추억의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은 둘의 사랑이 싹튼 추억의 공간이므로, 춘향에게는 ‘나(춘향)의 혼백 위로하여’ 줄 공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그곳에서 이몽룡에게 자신을 손수 염습하여 묻어 달라고 했으므로 춘향이 어사또의 사랑을 다시 확인받고자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③④ 춘향은 이몽룡에게 ‘서방님 귀히 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일시도 둘라 말고’ 자신을 ㉠에 묻고, 자신의 묘에 ‘정절을 지키다 원통하게 죽은 춘향의 묘’라 새겨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은 정절을 지키다 억울하게 죽은 춘향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공간이자, 이몽룡에 대한 정절의 보상으로 죽어서라도 신분 상승을 이뤄 내고 싶은 춘향의 욕망이 투영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22.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D]의 발화가 나타난 맥락을 볼 때, 춘향이는 옥에 갇혀서도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고 금의환향하여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으며, 이러한 딸의 바람과는 달리 거지꼴로 돌아온 이몽룡에 대해 춘향 모친은 [D]를 통해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D]는 언어유희를 이용해 이몽룡을 비꼬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어사또는 춘향 모친에게 말을 낮추고 있다. ② 기대하지도 못했던 이몽룡의 목소리가 들리자 춘향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있는 표현이다. ③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향이 자신의 모친을 염려하고 있는 표현이다. ⑤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오?’라는 말에서 어사또에 대한 믿음보다는 거지꼴로 돌아온 이몽룡에 대한 충격과 실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자문자답을 하고 있지도 않다.

23. 추론적 사고(사자성어의 적용)

정답해설 : ㉠의 상황을 표현하기에는 ‘자나 깨나 잊지 못하다’라는 뜻의 ‘오매불망(寤寐不忘)’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寐不忘)’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동병상련’은 같은 병자(病者)끼리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處地)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 동정(同情)하고 서로 돕는다는 뜻이다. ③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뜻이다. ④ ‘조변석개’는 일을 자주 뜯어고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⑤ ‘풍수지탄’은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를 다하려고 생각할 때에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24-26] 언어,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지문해설 :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과 그 과정을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기존 단어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라고 한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은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필요에 의해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를 만들겠다고 결정한다. 둘째, 수많은 단어 가운데 근거로 이용할 만한 단어들을 찾는다. 셋째, 수집한 단어들과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과 형식을 비교하여 공통성을 포착하고, 이 때 근거로 삼을 단어를 확정한다. 넷째, 근거로 삼은 단어의 개념과 형식 관계를 적용해서 단어 형성을 완료한다. 유추에 의한 단어의 형성은 필요에 의해 기존 단어를 본떠서 단어를 형성하므로 불필요한 단어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주제]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과 그 과정

24.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위 글은 단어 형성 방식 중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위 글을 통해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이외의 단어 형성 방식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란 기존 단어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② 1문단의 ‘잉어빵’이나 3문단의 ‘종이공’은 유추에 의해 형성된 단어이다. ④ 4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유추에 의한 단어의 형성은 필요에 의해 기존 단어를 본떠서 단어를 형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어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는 이론에서는 이러한 점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⑤ 2문단에서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3문단에서 ‘종이공’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3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야 하는 문제이다. ‘결혼반지’의 경우 반지 앞에 오는 말이 반지의 사용 목적인 반면, ‘금반지’는 반지의 재료이다. 그러므로 ‘금반지’를 근거로 삼아 ‘수정으로 만든 반지’를 의미하는 ‘수정반지’라는 새로운 단어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가 형성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바닷물’의 경우 물 앞에 오는 말이 물이 흐르는 장소인 반면, ‘설탕물’은 물에 탄 재료이다. 그러므로 ‘인삼 가루를 탄 물’을 의미하는 ‘인삼물’은 ‘설탕물’을 근거로 형성된 단어이다.

③ ‘생일떡’의 경우 떡 앞에 오는 말이 떡의 사용 목적인 반면, ‘호박떡’은 떡의 재료이다. 그러므로 ‘회갑을 기념하는 떡’을 의미하는 ‘회갑떡’은 ‘생일떡’을 근거로 삼아 형성된 단어이다. ④ ‘겨울옷’의 경우 옷 앞에 오는 말이 옷을 입는 시기(계절)인 반면, ‘비단옷’은 옷의 재료이다. 그러므로 ‘비닐로 만든 옷’을 의미하는 ‘비닐옷’은 ‘비단옷’을 근거로 삼아 형성된 단어이다. ⑤ ‘유리잔’의 경우 잔 앞에 오는 말이 잔의 재료인 반면, ‘우유잔’은 잔의 용도이다. 그러므로 ‘돌로 만든 잔’을 의미하는 ‘돌잔’은 ‘유리잔’을 근거로 삼아 형성된 단어이다.

26.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2문단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면, 새로 형성된 단어는 처음에는 신어(新語)로 다루어지지만, 이후에 널리 쓰이게 되면 국어사전에 등재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언중들은 ‘맑은탕’을 ‘싱건탕’보다 많이 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언중들이 많이 쓰는, 즉 널리 쓰이는 ‘맑은탕’이 ‘싱건탕’보다 사전에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싱건김치’는 국물이 맑은 김치이다. ‘싱건탕’ 또한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맑은 탕을 뜻하는 말로 일부에서 제안한 단어이다. 그러므로 둘 모두 국물이 맑다는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③ ‘맑은탕’은 국물이 맑다는 점에 착안해서 ‘맑은국’에서 유추한 단어이다. ④ ‘싱건탕’은 ‘싱건김치’에서, ‘맑은탕’은 ‘맑은국’에서 유추한 단어들이다. ⑤ 언중들은 ‘싱겁다’라는 의미에 주목하여 ‘싱건탕’을 ‘맛이 짜지 않은 탕’으로 생각했다.

[27-30] 현대시

(가)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郷)」

작품해설 : 이 시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갈등과 이상향에 대한 내적 지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제1연에서 화자는 고향에 돌아와 '방'에 누웠으나 자신의 '백골'이 따라와 함께 누워있다고 생각한다.

제2연에서 '어둔 방'은 고독하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열린 세계인 '우주'로 통하고 있으며 화자는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한다.

제3연에서는 자아가 분열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현실 상황에 안주하려는 현실적 자아('백골')와 역사와 민족의 현실을 자각하고 고민하는 이상적 자아('아름다운 혼')가 갈등을 일으킨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제4연에서 자아가 분열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들려 온 '지조 높은 개'는 나약한 현실적 자아를 꾸짖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제5연에서 '어둠을 짓는(짓는)' 소리를 통해 진정한 '나'의 삶을 다짐하게 된다.

제6연에서는 '백골'을 떠나 새로운 이상 세계로 나아가려는 화자의 모습이 '가자'라는 청유문의 반복을 통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아의 정체성 회복과 자아분열의 극복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자아의 성찰을 통해 드러난 이상 세계에 대한 갈망

(나) 오세영, 「자화상·2」

작품해설 : 까마귀를 통해 시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태도와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성찰하고 있는 시이다. 연 구분 없이 총 21행으로 구성된 이 시는 의미상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2행에서는 '까마귀'와 '까치'가 다름을 언급하고, 이어서 3~6행에서는 의연하면서도 고고한 까마귀의 모습을 통해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어서 7~11행에서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얼어붙은 지상'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굶어 죽더라도 '까치'같은 삶은 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2~16행에서는 '눈'이 내려 '저마다 하얗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허위 속에 덮여 있지만, 자신은 까마귀처럼 철저하게 본질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17~21행에서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검은 까마귀처럼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시인인 화자는 검은 까마귀의 의연한 모습을 통해 시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성찰해보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람직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주제] 삶에 대한 성찰과 바람직한 삶의 다짐

(다) 김기택, 「멸치」

작품해설 : 생명의 소중함과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시이다. 연 구분 없이 총 21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1~4행에서는 생명력을 잃기 전의 '딱딱한 멸치'가 본래 '물결'이었다고 말하며 생명력이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다니던 멸치의 본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5~13행에서는 멸치의 생명력을 뺏은 부정적인 힘을 '그물'과 '햇빛의 곳곳한 직선'으로 표상하고 있으며, 멸치의 생명력이 박탈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4~21행에서는 화자의 상상력을 통해 멸치의 본래적 생명력을 추측하고 있다. '딱딱한 멸치'의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상상하며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해서 반생명성과 폭력성을 의미하는 '고깃배'와 '그물'을 부수고 찢었던 것을 상상하며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생명 회복의 의지

27.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이해)

정답해설 : (가)는 현실 상황에 안주하려는 '백골'이 있는 '어둔 방'과 '아름다운 혼'이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지향하는 ‘또 다른 고향’의 공간 대비를 통해, (나)는 ‘까치’가 넘보는 ‘인가의 안마당’과 ‘까마귀’가 응시하는 ‘먼 지평선’의 공간 대비를 통해, (다)는 멸치가 생명력을 잃은 공간인 ‘건어물집’과 생명력이 있는 ‘바다’의 공간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 (나), (다) 모두 영탄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② (가)의 ‘가자 가자’와 (다)의 ‘~것이다.’ 같은 시어의 반복은 있지만, (가), (나), (다) 모두 시행의 반복은 없다. ④ (가), (나), (다) 모두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지 않다. ⑤ (가), (나),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28. 추론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가)의 ‘방’은 현실 상황에 안주하려는 현실적 자아(‘백골’)와 함께 있는 곳이다. 즉, 부정적 자아를 발견하는 공간이므로 화자의 어두운 내면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나)의 ‘먼 지평선’은 까마귀가 응시하는 공간으로, 까치가 넘보는 ‘인가의 안마당’과 대비되는 공간이므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백골’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부정적 자아이며 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화자의 내면 성찰이므로, ‘들여다보며’에서는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조 높은 개’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무력한 생활을 하는 ‘나’를 일깨우는 존재로,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 ③ (나)에서 ‘까마귀’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투영된 존재이므로, ‘형형한 눈’에서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릴 수 있다. ④ (나)의 2행에서 ‘까마귀’와 ‘까치’가 다름을 말하고 있으며, 11행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9.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나)의 ‘눈’은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을 하게 한다. 이는 저마다의 본질을 가리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화자는 자신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까마귀’를 통해 투영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검어라.’를 통해 ‘눈’ 때문에 하얗게 분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눈’에서는 충만한 느낌을 얻을 수 없고, 화자는 ‘눈’으로 분장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온한 삶이라 보는 것도 옳지 않다. ③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 것은 맞지만, 화자의 순결한 정신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④ ‘눈은 내려’ 부분까지 의미를 확장하면 하강 이미지가 쓰였다고 볼 수 있지만,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는 ‘눈’이 내려 분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30.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정답해설 : (다) 시의 흐름으로 보아 [D]에서 화자는 상상력을 통해 멸치의 본래적 생명력을 추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D]가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는 멸치가 생명력을 잃기 전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며, 바닷속을 유유히 흘러다니는 멸치의 자유로운 모습과 분위기가 나타나 있다. ② [B]의 ‘그물’과 ‘햇빛의 곳곳한 직선’은 멸치를 바다에서 끌어내 생명성을 잃게 하는 존재이므로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C]는 멸치가 잡혀서 생명력을 잃고 반찬으로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⑤ [E]는 멸치가 본래 지녔던 강인한 생명력을 환기하며, 그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1-34] 사회, ‘시대에 따른 놀이의 성격 변화’

지문해설 : 이 글은 시대가 지닌 특성에 따라 놀이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글이다. 신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사회에서 놀이는 제의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며 연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는 생산성 극대화, 이익의 획득 등이 중시되면서 놀이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휴식의 시간으로, 상품 소비를 통한 또 다른 이익 획득의 기회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놀이의 성격 변화는 놀이를 즐기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와 구경이나 소비 위주의 놀이가 이루어졌다. 그러던 것이 디지털 혁명을 겪으면서 자발적 참여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마침 인터넷이 가진 쌍방향성이 이러한 놀이를 가능하게 하면서 참여자들 사이의 연대감을 형성하게 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놀이의 성격 변화를 보여주며 자본주의 사회의 놀이와 인터넷 시대의 놀이 방식의 차이를 대비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주제] 시대가 지닌 특성에 따른 놀이의 성격 및 방식의 변화

31. 사실적 사고(전개 방식에 대한 파악)

정답해설 : 고대인에게 있어서의 놀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놀이, 디지털 혁명 이후 인터넷 시대의 놀이를 시대의 변화에 대한 서술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놀이’라는 중심 화제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는 글로, 두 개념의 장단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필자의 관점만 제시될 뿐 다른 관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시대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놀이의 성격을 설명한 글로 경험적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32.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고대 사회에서의 희생 제의는 자연을 훼손한 인간의 죄를 씻는 것으로, 이는 인간이 자신에게 유용하게 하기 위해 훼손한 자연을 원래의 상태로 되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돌리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제의를 올리며 놀이를 즐겼다.'라는 진술이 있다. ③ 2문단 중간 이후를 보면 '휴식 시간마저도 대부분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진술이 나온다. ④ 3문단 첫 문장에 나와 있다. ⑤ 4문단의 셋째, 넷째 문장에 진술되어 있다.

33.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 해석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놀이를 즐기는 상황이다. 축구 경기 동영상 보는 것이기에 구경꾼의 입장으로 수동적 소비를 하는 경우이다. 쌍방향적 놀이가 되기 위해서는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도 해야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생산성 향상이나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회사가 근무 중의 개인의 놀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 놀이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③ 축구에 직접 참가한 사례이다. ④ 경기장에 가기는 했으나 축구를 구경하는 것이기에 구경꾼의 입장이다. ⑤ 인터넷은 쌍방향 활동이 가능하기에 참여자들 사이의 연대감이 형성된다.

34. 어휘 어법(다의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바로'는 '다름이 아니라 곧'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앞의 단어를 받아 이를 다시 다른 말로 바꾸어 쓰는 경우에 사용하기에 ②의 '청소년의 미래는 바로 나라의 미래이다.'에서 '바로'와 동일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의 의미이다. ③ '사리나 원리,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게'의 의미이다. ④ '도리, 법식, 규정, 규격 따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의 의미이다. ⑤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이 곧게'의 의미이다.

[35-39] 갈래 복합

(가) 박인로(1561-1642), '누항사(陋巷詞)'

작품해설 : 조선 중기의 가사 작품이다.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그 이전과 달라진 양반 사대부의 궁핍해진 삶의 실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누추한 거리(陋巷)'에서 겪고 있는 사대부의 삶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전기의 삶의 방식이 붕괴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삶의 모습이 좌우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대부로서의 권위도 보장되지 않고, 그렇다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을 통해, 양쪽 모두에서 소외된 양반 계층의 갈등과 괴로움을 적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가난한 처지에 대해 진솔한 감정을 고백하면서도 대자연에 과묵히 안빈낙도(安貧樂道)하며, 충효와 신의, 우애 등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시에 사대부로서 자신이 겪고 있는 궁핍한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안빈낙도의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주제]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安貧樂道)하고자 하는 사대부의 궁핍한 생활상

(나) 권구(1672-1749), ‘병산육곡(屏山六曲)’

작품해설 : 조선 후기 권구(1672-1749)가 지은 6수의 연시조 작품 가운데 제2수와 제4수이다. 작자인 권구의 고향 마을인 경상북도 안동의 풍천면 병산리에서 작품의 제목을 따왔다. 이 작품은 세상사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의 안분지족(安分知足)하겠다는 사대부의 삶을 그리고 있다. 퇴계 이황의 <도산육곡(陶山六曲)> 등 육가계(六歌系) 시조의 맥을 잇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安分知足)하고자 하는 사대부의 삶

(다) 김용준(1904-1967), ‘조어삼매(釣魚三昧)’

작품해설 : 1948년 『근원수필』에 수록된 수필 작품이다. 지은이가 낚싯대를 들고 나가 낚시를 하면서 일어난 일을 서술하고 있다. 해방 이후라는 혼란한 시대에 불안정한 사회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지식인의 고뇌와 괴로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현실을 바라보는 지은이의 시선은 매우 직선적이고 예리하면서도 마음 속 울분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선비정신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글의 말미에 ‘현명한 신사 잉어’ 등을 언급한 것은 맑고 고결하며 품격 있는 정신을 지향하는 작가의 내면 세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의 괴로움

35. 비판적 사고(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다)에서는 의인화된 대상인 ‘개구리’와 ‘방계’, ‘망둥이’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아무리 내 채주가 서툴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계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개구리까지도 망둥이까지도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꿈쩍달짝 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러한 것인가.”라는 표현에서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파하기]

- ① (가)에서는 풍자의 기법이 사용되지도 않았고, 대상을 조롱하는 장면도 없다.
- ② (나)에서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는 내용은 작품의 실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에서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서러운 정감을 표출하고 있을 뿐,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가)와 (나) 두 작품이 선경후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두 작품 모두 삶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⑤ (나)와 (다)는 감정을 절제하고 있지 않다. 화자나 지은이의 감정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36. 비판적 사고(시적 대상의 이해)

정답해설 : (가)의 ‘풍월강산’과 (나)의 ‘세간’은 서로 대비되는 공간이다. 풍월강산이 세간(속세)과 대비되는 자연의 공간이라면, 세간은 세상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살아가는 현실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풍월강산과 세간이 모두 풍류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먹을 것이 있어봤자 ‘죽’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화자의 궁핍한 생활을 엿볼 수 있다. 겨우 ‘죽’을 먹거나 그도 아니면 굶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궁핍한 삶이 형상화되어 있다.
- ② ‘무심한 백구’는 사심이 없는, 순진무구한 자연물의 표상이다. 흔히 고전시가에 등장하는 ‘무심’이라는 표현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심이 없는 ‘순진무구함’을 일컫는다. ‘백구’는 순진무구한 존재를 표상한다.
- ③ ‘잉어’는 ‘개구리’나 ‘방개’, ‘망둥이’ 등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고상하면서도 순결한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의 화자는 ‘광풍’으로 말미암아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날짐승이 의지할 곳을 잃은 상황에 번민하며, (다)의 화자는 자꾸만 들려오는 세간의 시비 소리에 번민한다.

37. 추론적 사고(작품의 서술 및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실제 역사 속 인물의 구체적 삶을 통해 인간의 삶은 누구나 공평한 것이어서 가난하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백년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원헌’과 ‘석승’ 등의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상황으로 전환하고 있지는 않다. “~백년 살라.”와 같은 설의적 표현과 “~ 몇 해 살았나.”와 같은 의문형 표기만으로 대화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② <보기>의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새로운 공간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보기>의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질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④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단서라고 하기에는 상황과 맥락에 적절하지 않고, 또한 인물간의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38.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 의 중장, “백구(白鷗)로 벗을 삼아 어조생애(漁釣生涯) 늘거가니”라는 표현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아니다. 자연과의 일체감은 어느 정도 드러나지만,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천심절벽’을 통해 수직적 이미지를, ‘일대장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 수평적 이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미지를 제시하면서 공간을 묘사하고 있다.

③ 텅 빈 산중 떠가는 달의 형상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통해 청각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④ “낙화광풍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라는 표현을 통해 드세게 불어대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세차게 흔들리고 꽃이 지는 형상을 제시하면서 어떤 나뭇가지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두견새의 처지를, “어느 가지 의지하리(의지할 곳이 없다.)”와 같이 설의적 표현을 통해 형상화했다.

⑤ [B] 와 [C] 의 종장에서는 각각 “나는”과 “내곳” 등과 같이 화자가 직접 등장하여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다)의 화자는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꿈쩍달삭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러한 것인가.”와 같은 표현을 통해 세상에 대해 분노와 고뇌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반면 <보기>의 ‘어옹’은 그림의 제목인 ‘차가운 바위에서 물고기 낚시를 함’에서도 드러나듯, 세상사를 넘어서 홀로 자연 속의 한가로움을 즐기며, 초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다)의 화자가 고기잡이를 통해 생계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 답답하고 비분강개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부터 잠시 벗어나고자 낚시를 하는 것이지, 생계를 위한 것은 아니다.

③ (다)의 화자는 고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기>의 어옹 또한 물고기를 잡으려는 생각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④ (다)의 화자는 자신의 부족한 능력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기보다는 시대상황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고, <보기>의 ‘어옹’은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⑤ (다)의 화자와 <보기>의 ‘어옹’ 모두 자연 속에서 함께 풍류를 즐길 ‘벗’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40-43] 예술, ‘바실리카식 성당’

지문해설 : 바실리카식 성당의 구조를 설명하고, 당대의 미의식을 표현한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을 밝히고 있는 글이다. 4세기 경부터 출현한 바실리카식 성당은 이후 부분적 변화를 겪으면서 중세 시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바실리카식 성당의 평면은 초기에는 동서 방향으로 긴 직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바실리카식 성당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나르텍스로부터 네이브와 아일을 거쳐 앱스에 이르는 공간은 세속에서 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의 위계를 보여 준다. 이후 성직자의 위상이 높아지고 종교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적 공간인 트랜sept가 추가되어 열십자 모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양의 건물이 되었다. 바실리카식 성당은 외부에서 보면 기둥이나 창 등을 통해 하늘을 향한 수직선이 강조된 인상을 준다. 이는 신에 가까이 가려는 인간의 욕망이 표현된 것이다. 이처럼 바실리카식 성당은 기능적 공간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미의식을 표현한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주제] 바실리카식 성당의 구조와 종합예술로서의 성격

40.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바실리카 형식은 평면도상 긴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원래 시장이나 채판소와 같은 공공 건축물에 쓰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바실리카식 성당이 종교적 기능을 가진 로마 시대 건축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서양 건축 예술의 역사는 성당 건축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4세기경부터 출현한 바실리카식 성당은 이후 평면 형태의 부분적 변화를 겪었다. ④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성직자의 위상이 높아지고 종교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트란셉트라는 공간이 추가되었고, 이때부터 건물은 더욱 웅대하고 화려해졌다. ⑤ 4문단을 보면, 실내의 벽과 천장에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 등을 담은 그림을 채워 넣었다고 하였다.

4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종교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트란셉트라는 공간이 추가되었다고 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을 보면, 출입구와 현관이 있는 곳은 나르텍스이다. ② 2문단을 보면, 일반 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곳은 네이브이다. ④ 2문단을 보면, 복도로 활용되는 곳은 네이브 양 옆에 붙어 있는 아일이다. ⑤ 2문단을 보면, 신성한 제단이 있고 오직 성직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앱스이다.

42. 추론적 사고(다른 상황への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파르테논 신전을, 위 글은 바실리카식 성당을 설명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을 미의 원천으로 인식했는데, 이러한 미의식이 파르테논 신전의 공간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4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의 중세인들은 모든 미의 원천을 신이라고 보고 빛은 신의 속성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미의식이 바실리카식 성당의 공간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파르테논 신전은 지붕에 신들의 조각을 새겨 넣었고, 바실리카식 성당 또한 출입구 쪽의 외벽과 기둥에 신이나 성인의 모습을 새겨 넣었다(4문단). ② 파르테논 신전은 수평선을 강조한 인상을 준 반면, 바실리카식 성당은 하늘을 향한 수직선이 강조된 인상을 준다(4문단). ③ 파르테논 신전은 건물 외부가 빛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띠는 반면, 바실리카식 성당은 창을 통과한 빛이 다양한 색채로 건물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내부 공간에 퍼지도록 하였다(4문단). ④ 평면의 형태가 열십자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트란셉트라는 공간이 추가된 바실리카식 성당이다(3문단).

43. 어휘(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해설: ‘위계’는 ‘위치나 지위의 단계’라는 의미이다. 한편, ‘위엄’은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한 태도나 기세’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답 ④

[44-46] 과학, ‘기체 분자의 속력 분포에 대한 맥스웰의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기체의 운동과 관련된 맥스웰의 이론을 설명한 후에, 그것을 입증한 밀러와 쿠퍼의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기체 분자는 다른 분자들과 매우 많은 충돌을 하기 때문에 기체 분자 하나의 정확한 운동 궤적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체 분자들이 갖는 다양한 속력 분포는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맥스웰은 기체의 속력은 온도와 분자의 질량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질량이 적을수록 기체 분자의 속력이 빨라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체 분자들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속력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 분자 수 비율과 속력을 기준으로 한 그래프를 고안하였다. 밀러와 쿠퍼는 기체 분자들의 속력 분포에 대한 맥스웰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 장치를 고안했는데, 이 실험 장치는 작은 틈이 있는 두 개의 원판을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면서 특정한 속력 구간을 가진 기체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밀러와 쿠퍼는 이 실험에서 맥스웰의 속력 분포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주제] 맥스웰의 속력 분포 이론과 그것을 입증한 밀러와 쿠퍼의 실험

4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분자들이 충돌하게 되면 각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변할 수 있지만, 분자들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기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파하기] ① 1문단에서 기체 분자가 충돌하면 기체 분자의 속력이 변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기체 분자가 충돌하면 그 운동 방향과 속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자 하나의 정확한 운동 궤적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기체 분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충분히 먼 경우에는 분자들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기체 분자들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모든 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45.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への 적용)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설명된 기체 분자의 속력 분포에 대한 맥스웰의 이론에 의하면, 기체 분자의 속력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질량이 적을수록 빨라진다. 또한 기체 분자들의 속력이 빨라지면 그래프의 모양이 납작해지고 넓어지며, 속력이 느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지면 그래프의 모양이 뾰족해지고 좁아진다. 이를 <보기>에 적용해 보면, 질량이 가벼운 아르곤 분자는 크립톤 분자보다 속력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은 727℃의 아르곤이 25℃의 아르곤보다 분자의 속력이 빠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체 분자의 속력은 727℃의 아르곤 > 25℃의 아르곤 > 크립톤 순으로 빠르기 때문에 가장 빠른 727℃의 아르곤은 가장 납작한 형태를 보이는 그래프 C, 25℃의 아르곤은 중간 형태를 보이는 그래프 B, 가장 느린 크립톤은 가장 뾰족한 형태를 보이는 그래프 A와 같은 분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46.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밀러와 쿠퍼의 실험 장치에서는 앞뒤로 두 개의 원판을 사용하는데, 두 번째 원판은 첫 번째 원판에 있는 틈과의 각도를 달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마지막 문단 ‘만일 첫 번째와 두 번째 틈 사이의 각도를 더 크게 만들면, 같은 회전 속력에서도 더 속력이 느린 분자들이 검출될 것이다.’에 설명된 바처럼, 두 회전 원판의 틈과 틈 사이의 각도가 커지면 더 느린 분자들이 검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밀러와 쿠퍼의 실험은 기체 분자가 각기 다양한 속력을 갖는다는 맥스웰의 속력 분포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② 실험 장치는 첫 번째 원판에 입사된 기체 분자들 중 두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한 것만 검출기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③ 첫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한 분자들의 속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속력 구간을 가진 분자들만 검출하기 위해 두 번째 원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틈과 틈 사이의 각도를 고정하고 원판의 회전 속력을 느리게 하면 첫 번째 원판을 통과한 기체 분자들 중 느리게 움직이는 기체 분자들만 두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47-50] 현대 소설 - 김동리, ‘역마’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48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이다. ‘역마’는 ‘역마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곳에 머물지 못하고 늘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만 하는 액운을 말한다. 이 작품에는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가 담겨 있다. 성기의 역마살은 외할아버지인 채 장수 영감과 아버지인 떠도는 중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성기의 엄마인 옥화는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의 동생인 계연과 아들인 성기를 이어 주는 일음을 깨닫고 계연을 떠나 보낸다. 옛 장수가 되어 휘파람을 불며 길을 떠나는 성기의 모습에서 운명에 순응하는 삶의 편안함이 엿보인다. 이러한 성기의 삶은 운명을 극복하지 못한 패배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운명과 조화를 이룬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주제] 한국적 운명관에 순응하는 삶과 인간 구원의 문제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47.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그 해 아직 봄이 오기 전~’부터 이어지는 부분은 과거 장면이 삽입된 부분으로 사건의 요약적 서술과 옥화의 말을 통해 채 장수 영감과 옥화, 그리고 계연의 관계가 밝혀지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동일한 공간을 배경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③ 옥화가 성기에게 그간의 숨겨진 사연을 말해 주는 부분에서 사건을 요약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드러나긴 하지만,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④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이다. ⑤ 서술 속에 인물의 말이 문장 부호 없이 인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등장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독백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48. 비판적 사고(시점)

정답해설 : <보기>의 (가)는 작가를 대리하는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작품 속의 인물에 대해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나)는 작품 속 인물인 옥화가 자신에 대해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따라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된다면, ㉠에서 ‘어미’는 옥화 자신이므로 ‘나’로 서술되고,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은 그대로 표현되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④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나의 뼈만 남은 손’으로 쓰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며, ③과 ⑤는 1인칭 주인공인 옥화의 말이므로 ‘나는’으로 써야할 것을 ‘옥화는’, ‘엄마는’ 등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9. 추론적 사고(소재,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⑥의 ‘유달리 맑게 갠’ ‘햇빛’과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우는 ‘뼈꾸기’는 계절적 변화를 알려 줌과 동시에,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함으로써 성기의 절망적인 심리가 변화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고운 햇빛’은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으로 표현된 계연을 잡지 못하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는 성기의 안타까움을 대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② ㉠의 ‘거의 울음이 다 된’ 계연의 ‘목소리’는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뼈꾸기 울음’과 어우러져 성기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 ④ ⑥의 ‘뼈꾸기’와 ‘화개 장터’가 시대적 상황을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제시된 부분에는 작품의 배경이 된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⑥의 ‘또다시’ ‘햇빛이 젖어 흐르는’ ‘늘어진 버들가지’는 성기의 내적 갈등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50.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정답해설 : <보기>의 ㄱ에 따르면 전통적인 인물은 운명에 순응하는 수동적 존재이다. ㄴ에 따르면 현대인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 존재이다. 대비적인 두 관점 중 ‘ㄴ에 따’라 「역마」의 인물들을 해석할 경우 ‘성기를 떠난 계연은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전통적 인물이면서도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물'(③)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ㄱ에 따르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므로 성기와 계연의 이별 장면은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② ㄱ에 따르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세상과 조화되는 것이므로 성기의 행동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다. ④ ㄴ에 따르면 「역마」의 인물들은 비합리적인데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옥화가 명도의 말에 따르는 것이다. ⑤ ㄴ에 따르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은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운명에 따라 하동 쪽으로 발을 옮겨 놓는 성기는 소극적 삶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